

# 필립트레이시(Philip Treacy) 작품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 은 실\* ·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A Study on the Plasticity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Philip Treacy's Hat Design

En-Sil Kim\* · Soo-Jeong Ba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3. 3. 3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ward the hat design development by looking into the formative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of Philip Treacy, the designer who raised hats to one of the important fashion accessories.

This study concretely investigat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reacy's hats in terms of shapes, materials, colours and decoration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shape of his hats shows the natural and specific objects in three dimensions, not in basic shape of hats. He uses combination of a variety of materials, adding unique materials to existing ones, so that they not only create a specific atmosphere but also extend the limitation which used to be thought as materials for hats. In the field of colour, he mainly used black and white until 1999, but since 2000 he has been using vivid and splendid colors. And he uses feathers or nets for decorations of the hats.

As the result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reacy's works, this study characterizes his works by surrealist, three-dimensional, rhythmic and future-oriented. Therefore, Philip Treacy's hat design can be defined three dimensional considering the formative beauty, and can be characterized by use of unique materials, vivid & bold colours, moderate decorations, a variety of lines, and asymmetrical structures. These characteristics show surrealist, three-dimensional and futuristic message which rhythm can be felt. He presents unlimited capability in hat designs as a representative of human being's basic will for creating new ones beyond this real world.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can help broaden the limitation of the hat design which used to repeat simple forms in the past and help explore ways for developmental direction of hat design in the future.

Key Words: Philip Treacy(필립트레이시), hat designer(모자 디자이너), surrealistic characterize(초현실적 특성), three-dimensional characterize(입체적 특성), rhythmic characterize(울동적 특성), future-oriented characterize(미래지향적 특성)

## I. 서론

과거에 모자는 주로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목적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되어왔다<sup>1)</sup>.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패션이 다양화되고 개성화 되면서 그 쓰임새가 다양해져 공식석상에서의 예의나 신분 상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는 액세서리로서 즉, 장식적 목적으로 모자를 사용하게 되었다<sup>2)</sup>. 패션에서 모자는 복장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액세서리이며, 착용위치가 얼굴에 가까워 헤어스타일(hair style) 못지 않게 얼굴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일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sup>3)</sup>.

역사적으로 모자가 지니는 형태는 의복의 실루엣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의복의 색채, 장식, 소재에 따라서도 변해왔다. 따라서 모자디자인은 의복디자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의복디자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자 디자인 또한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고, 모자디자이너를 의복디자이너와 거의 동등한 대열에 오르게 하였다. 이 결과 모자 디자이너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 1967~)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는 점차 침체되어가고 있는 모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모자를 중요한 패션 액세서리로 부상시킨 선구적인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패션 전문지와 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패션전문 잡지인 ELLE 에서는 그를 재치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이너라고 평하였으며<sup>4)</sup>, 미국의 CNN 방송은 “트레이시는 머리에 추상예술을 만든다”는 주제로 트레이시의 환상적인 컬렉션과 실험적인 시도에 대해 극찬한 바 있다<sup>5)</sup>. 보그에서는 그의 작품을 예술적이며 더 나아가 꾸뛰르(Couture)와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r)

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이라고 평하였다<sup>6)</sup>.

필립 트레이시가 패션계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 원인에는 이런 평론가들의 호평 외에도 화려한 수상경력을 들 수 있다. 그는 1990년 런던의 R.C.A (Royal College of Art)를 졸업한 후 영국에서 올해의 액세서리 디자이너 (British Accessory Designer)로 다섯 번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sup>7)</sup>. 뿐만 아니라, 트레이시는 졸업 직후인 1991년에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와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세계 유수의 오프꾸뛰르 디자이너<sup>8)</sup>들을 위해 모자 디자인을 하였고<sup>9)</sup>, 2000년을 시작으로 파리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를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모자 디자이너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필립 트레이시가 구상한 모자 디자인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의 작품이 갖고 있는 조형성과 작품에 나타난 미의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패션에서 부각되고 있는 토털 패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모자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범위는 필립 트레이시가 본격적인 모자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시작한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이 시기에 발표된 그의 독자적인 컬렉션인 프레타포르테 Prêt-à-Porter Collection)와 오프꾸뛰르 컬렉션(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에서 여성용 모자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연구자료는 관련 외국서적, 논문, Mode et Mode, Collections, Vogue 와 같은 각종 패션잡지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II.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의 작품세계

필립 트레이시는 1967년 아일랜드 서부의 갈웨이(Galway)에서 태어나 1985년 국립 예술학교(National College of Art)에 입학하여 의상디자인을 전공한 후, 1988년 런던의 왕립예술학교 R.C.A(Royal College of Art)에서 모자 디자인 석사과정을 마쳤다<sup>10)</sup>. 샤넬의 경우 모자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하여 옷을 만드는 것으로 전향했지만, 그는 역으로 옷 디자인에서 모자디자인으로 옮겨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석사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패션공부를 시작했을 때 옷을 디자인하는 것 보다 모자 만드는 것을 더 즐겼다. 모자를 만드는 것은 나에게 있어 어떤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모자의 핵심은 형태, 장식에 있다” 라고 말하였다<sup>11)</sup>. 졸업직후 1991년에 칼 라거펠드와 만나 그 후 10년 동안 샤넬에 모자를 공급하였고 오프뚜띠르 디자이너들을 위해 모자 디자인을 하였다<sup>12)</sup>.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자 컬렉션을 선보여 그동안 수많은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그의 작품을 선보였고, 2000년부터는 모자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파리 오프뚜띠르 컬렉션에 진출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된다. 2000년 이전까지는 오프뚜띠르 디자이너들에게 모자를 디자인해주었던 반면, 2000년 이후부터는 세계 유수의 꾸뛰르에들<sup>13)</sup>에게서 쇼를 위한 옷을 제공받게 되었다<sup>14)</sup>.

그의 모자에 대한 기본 철학은 모자를 마치 조각처럼 생각하고 디자인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길 “나는 나를 조각가와 동일시한다. 모자를 만드는 것은 기술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가는 피카소이며, 그의 “bric-a-brac” 조각품을 좋아하는다<sup>15)</sup>”며 그의 작품에서 형태의 입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더블린(Dublin)에 있는 모던아트 박물관(Museum of Modern Art)에서 2000년 6월 10일부터 2001년 4월 5일까지 “Unlikely sculpture”라는 주제로 열었던 그의 모자 전시회에

서는 모자의 모양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되는 우든 블럭(Wooden Block)을 전시함으로써<sup>16)17)</sup> 이제까지 그가 디자인한 모자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피카소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그는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아 모자 디자인을 하였으며, “나는 내 모자가 얼굴의 윤곽을 명확히 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모자는 사람의 잘생긴 부분을 강조한다. 또한 모자는 얼굴의 형태와 분할된 모습을 변형시킨다”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좋은 모자란 마치 현대적이며 저렴한 성형수술과 같은 것으로, 당신의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예술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트레이시는 선명한 색채와 대담한 분할구도를 가진 모자를 만든다<sup>19)</sup>. 그는 또한 자연물에서 많은 형태와 소재, 문양의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sup>20)</sup>. 각종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염소뿔의 형태, 테이지꽃, 가재, 달팽이, 뱀의 형태들과 거위 깃털, 각재, 펠트, 모피, 밀짚, 거즈 같은 자연적인 소재 그리고 자연물에서 얻은 문양을 응용한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가 아일랜드의 갈웨이(Galway)지방의 시골 출신으로 많은 디자인의 영감이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평론가 다이애나 릭(Diana Rigg)은 “그의 작품은 대담하지만 깃털의 산들거림을 표현하고 벨벳의 빛남으로 서정적인 빛을 발하고 있다<sup>21)</sup>”고 평하고 있다.

## III.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 작품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성

필립 트레이시는 1993년부터 2001년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r) 컬렉션까지 일년에 한 번 뉴욕과 런던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보였으며, 2000, 2001년에는 모자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파리 오프뚜띠르(Haute Couture) 컬렉션에 참가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의 컬렉션에 발표된 모자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태와 소재, 색채, 장식 등 조형적인 측

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형태

트레이시의 모자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는 가장 중요한 조형적 요소이다. 앞에서 모자를 마치 조각품처럼 다룬다고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모자는 기존의 크라운과 브림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모자형태<sup>22)</sup>와는 달리, 마치 조형물과도 같이 입체적이다. 특히 그는 자연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형상화하여 모자 디자인에 응용하고 있다<sup>23)</sup>. 그가 즐겨 응용하는 자연물에는 난, 나비, 꽃, 뱀, 가재, 달팽이, 새, 조개, 양의 뿔, 화초, 해조류 등이 있으며, 특히 꽃, 나뭇가지, 깃털을 장식한 모자는 모델이 무대에서 캣워크(catwalk)할 때 움직임이 느껴지므로 리듬감과 율동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자연물 외에도 배, 레이저 모형, 의자, 분수 등 사물의 구체적인 형태를 모자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을 공간으로 입체화시켜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는 “사람들은 모자에 대해 이것은 1920년대의 클로슈(Cloche)이고 저것은 1940년대의 베레모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닌 변형되고 독특한 형태로 모자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언급하였다<sup>24)</sup>. 이는 모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그의 독창적이고도 실험적인 작품특성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1> Philip Treacy's 1999 F/W      <그림 2> Philip Treacy's 2000 S/S



<그림 3> Philip Treacy's 2000 F/W      <그림 4> Philip Treacy's 1999 F/W

<그림 1>은 1999 F/W 런던 패션 위크(London Fashion Week)에서 선보인 양의 뿔을 대담한 구도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는 자연물을 형상화시킨 대표적인 형태로 도전적인

뿔의 이미지를 모자에 도입시켜 매우 율동적인 형태미를 강조하고 모자에 도입된 유선형은 전체적인 형태의 기본선이 되고 있다. 또한 <그림 2>는 2000년 파리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선보인 작품으로 토크형태의 캡에 난의 형상을 장식하여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3>의 나비 형태, <그림 4>의 물고기의 형태를 모자에 응용함으로써, 그의 작품에 있어 자연물은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이밖에도 착용자의 이마를 가로질러 볼까지 뱀의 머리가 내려와 모자의 형태는 전혀 없이 구불구불한 뱀의 형태만을 강조한 작품도 있다.

구체적 사물을 모자에 응용한 예로 <그림 5>의 배모자(Ship hat)라는 작품은 과거 로코코(Rococo) 시대의 헤어장식으로 사용된 배(ship)를 모자에 응용하여 과거의 양식을 모자에 수용하면서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그림 6>은 의자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모자에 응용했을 뿐 아니라, <그림 7>에서처럼 우주행성의 형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5> Philip Treacy's  
1995 S/S



<그림 6> Philip Treacy's  
2000 F/W



<그림 7> Philip Treacy's  
1998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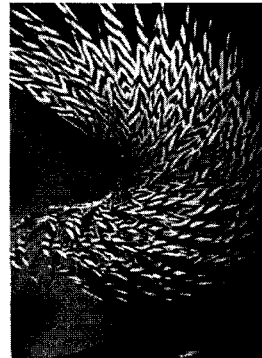


<그림 8> Philip Treacy's  
1997 F/W

각각의 선들은 정교한 계산에 의해 이루어져 착용자의 얼굴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소재

그의 작품에 사용된 소재는 모자를 제작하는 기존의 소재에 독특한 소재를 첨가시킨 것으로, 모직, 실크, 펠트, 가죽, 나일론, 모피, 밀짚, 거즈, 깃털, 베일, 그물망, 새틴, 투명한 명주망, 시폰, 오간자,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 같은 금속 소재,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을 가공처리한 메탈릭한 느낌의 소재, 코팅소재, 홀로그로피 소재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sup>25)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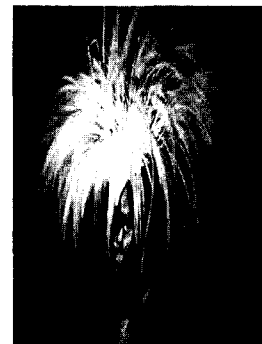
<그림 9> Philip Treacy's  
1998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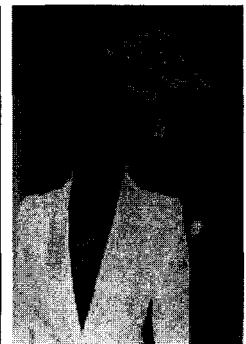
<그림 10> Philip Treacy's  
1994 F/W

이 외에도 트레이시의 모자는 마치 조각품과도 같아 <그림 8>에서처럼 모자의 형태가 예리한 칼날같은 조각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덩어리로서 조형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며, <그림 9>에서처럼 깃털을 재배열시킴으로써 해서 기하학적 형태를 조형적으로 형상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트레이시 모자의 형태는 기존 형태를 거부하고 특히 자연물 형태, 또는 구체적 사물을 응용하거나 기하학적으로 입체감 있는 형태로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자연물에서 주된 영감을 받은 것은 인간을 자연적인 요소와 융합시킴으로써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자에 사용된



<그림 11> Philip Treacy's  
2001 F/W



<그림 12> Philip Treacy's  
2000 F/W

모직은 촉감이 부드럽고 봉제하기 쉬운 직물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는 주름이 가지 않고 형이 흩어지지 않는 조형적인 작품들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모자에 장식적으로 사용하던 보조적인 재료들이 트레이시의 디자인에서는 모자의 주재료가 되기도 한다. <그림 9,10,11>은 장식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된 깃털이 모자의 주재료로 사용된 예로 깃털의 다양한 표면효과와 더불어 부드럽고 염색이 용이하다는 깃털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림 9>는 「explosion」이라는 부제로 그가 즐겨 사용하는 붉은색을 사용하여 깃털의 역동적인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그의 작품에서는 깃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림 12>의 종이를 이용한 디자인도 그의 작품에서 독특하게 선보이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나타내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플렉시 디스크 모자<그림 13>나 알루미늄 원판을 이용하여 제작한 모자<그림 14>들은 모자에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재에 가공처리를 함으로써 하이테크 소재를 선보이고 있는데, <그림 15>에서의 변형된 터번형 모자는 금색 코팅을 하여 광택있는 메탈릭한 느낌을 주며, <그림 16>은 나선형의 철사로 루프 형식의 틀을 만들고 이 위에 정교하게 주름잡은 오간자를 씌워 의복과 모자가 하나로 완성되어, 착용하게 되면 얼굴과 상체를 완전히 가린 형태가 된다. 이때 사용된 소재는 오간자에 가공처리를 한 홀로그로피 소재로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바램 혹은 익명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자의 소재는 기존에는 주로 의상과 같은 소재로 제작되었으나, 트레이시의 작품에서는 의상의 소재뿐만 아니라 자신이 형상화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그림 13> Philip Treacy's 2001 F/W



<그림 14> Philip Treacy's 2000 F/W



<그림 15> Philip Treacy's 1996 F/W



<그림 16> Philip Treacy's 2001 F/W

### 3. 색채

트레이시의 패션쇼에서 보여지는 모자의 색상은 선명하고 다양하다. 그의 초기 컬렉션인 “93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는 검정색으로 된 모자만을 선보였으며, 그 이후 “99년 컬렉션”까지는 검정색과 흰색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다<그림 5>. 그 외 그가 즐겨 사용하는 붉은색과 보라색, 노랑색, 녹색, 갈색, 파랑색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9,10>에서는 그가 붉은색을 작품에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7>은 플라스틱에 알루미늄 피복을 한 루렉스

소재를 사용하여 보라빛의 선명한 색에서 나오는 신비함을 느낄 수 있다<sup>27)</sup>. 또한 <그림 18>은 노랑색의 깃털을 기하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선명한 색상과 형태에 시선이 집중되는 작품이다.



<그림 17> Philip Treacy's 1997 F/W



<그림 18> Philip Treacy's 1997 F/W



<그림 19> Philip Treacy's 2001 F/W



<그림 20> Philip Treacy's 2000 F/W (preta-porte)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오프꾸뛰르 컬렉션 뿐만 아니라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도 녹색, 핑크, 연두색, 보라색, 파랑색 등의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이 주조색으로 선보여 신선한 자극을 불러일으켰다. <그림 19>는 핑크빛의 염소뿔 형태의 모자로 열가소성이 있는 소재에 의한 플리즈 가공을 하여 주름에 의한 형태미를 구사한 작품이며, <그림 20>은 크라운이 부드럽게 접히는 연두색의 실크햇으로 선명한 연두빛과 모자를 둘러싸고 있는 보라

색의 그물망은 은밀함과 멋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온 중절모에 그물망의 보랏빛이나, 모자의 연두빛 색상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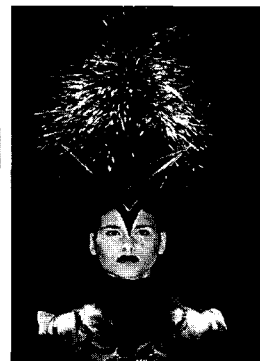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트레이시의 모자에 사용된 색상은 2000년 이전에는 검은색과 흰색이 주조색이었으나, 2000년 이후의 컬렉션에서는 좀더 선명한 자연색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모자의 색상은 의복 색상과 동일하거나 검정색 의상에 밝고 선명한 색의 모자로 포인트를 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앞의 여러 작품을 고려할 때, 그의 모자 형태가 자연물에서 온 것처럼 색상도 자연물의 다양한 색상들에서 차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4. 장식

트레이시는 깃털이나 망사, 레이스, 조화, 술, 리본 등을 모자에 장식하였는데, 특히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장식은 깃털로 이제까지의 모든 컬렉션에서 깃털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그림 21>과 <그림 22>에 제시되었다. <그림 21>은 토크형의 모자로 착용방법에 있어 비스듬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이드에 깃털 장식을 부착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림 22>는 깃털장식을 한 미래전사의 이미지를 모자에 담아낸 작품이다.



<그림 21> Philip Treacy's 1996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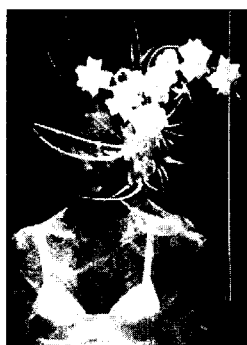


<그림 22> Philip Treacy's 1998 F/W



<그림 23> Philip Treacy's  
2001 F/W

“95년 컬렉션”까지는 주로 모자의 형태에만 치중하고 장식은 거의 없었으나, “96년 컬렉션”부터 깃털의 사용은 주재료에서부터 장식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26> Philip Treacy's  
2000 F/W



<그림 25> Philip Treacy's  
1996 F/W



<그림 24> Philip Treacy's  
2000 F/W

깃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장식적 소재는 망사로, “97, 98, 2001컬렉션”에서 망사의 사용은 두드러졌으며, <그림 7,20>에서처럼 망사의 사용으로 신비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 23>에 제시된 망사에 은색원반을 부착한 모자는 모델이 캣워크할 때 흔들리는 원반이 마치 모빌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준 작품의 예이다. 이런 울동감을 강조한 디자인은 <그림 24>의 술장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망사의 일종인 레이스 또한 자주 사용되는 장식소재로, <그림 25>는 크라운과 브림의 한쪽면에 레이스를 부착시켜 여성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그림 1>에서처럼, 은가루를 얼굴과 모자에 장식을 하여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 26>처럼 흰색의 조화를 머리에 부착하여 장식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2001년 컬렉션부터 최근까지는 다이아몬드, 진주, 조개, 깃털을 장식한 작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sup>28)</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트레이시 모자는 비교적 절제된 장식이기는 하나, 깃털을 통한 장식이 매우 독특하며, 그 외에 망사, 레이스, 조화, 술장식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듯 그의 작품에서 장식이 절제된 이유는 모자 디자인이 주로 형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 IV. 필립 트레이시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III장에서 분석했던 트레이시 작품이 갖고 있는 조형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트레이시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 즉 초현실적 특성, 입체적 특성, 울동적 특성, 미래지향적 특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1. 초현실적 특성

초현실성이란 현실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무의식에 기초를 둔 미학적인 표현방법을 말한다. 초



현실적인 작품은 일반적으로 괴이하게 창조된 작품을 지칭하며, 무의식의 세계가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대상의 일반적인 성격을 뒤엎고 창조적인 변형을 시도한 작품을 말한다<sup>29)</sup>. 즉 초현실성에는 데페이즈망(Depaysement)<sup>30)</sup>이라는 원리가 작용하는데, 이는 관계없는 형상들을 연결하거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미지의 결합을 통하여 불가능한 현실의 정서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다<sup>31)</sup>.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는 신체의 상징화로 인간신체의 유사물을 어떤 대상에서 실현시킨 방법으로 특히 눈과 입술이 초현실적 오브제<sup>32)</sup>로 자주 등장한다. 둘째, 위치와 용도 변경으로 일상의 의미와 용도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위치를 전환시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초현실성 개념은 트레이시 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sup>33)</sup>, 그 방법은 인간 신체에 대한 유사물을 다른 대상에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예로 <그림 4>는 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모델의 눈과 물고기의 눈을 일치시킨 예로 물고기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눈을 위치시킴으로써 초현실적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위치와 용도 변경의 특징으로 <그림 6>의 'Chair hat'은 의자의 본래 기능을 바꾸어 머리에 쓰는 새로운 창조물로 변형한 예이다. 뿐만 아니라 꽃이나 새와 같은 자연물을 모자로 만든 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다. <그림 2>에서는 난을 모자에 응용한 작품으로 자연물을 전혀 다른 용도로 전환시켰는데, 이러한 특성은 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상과 같이 그의 작품에서는 인체나 사물 또는 자연을 이용한 오브제화의 초현실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실을 떠나 환상의 세계로 탈피하고픈 그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트레이시의 작품 특성 중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2. 입체적 특성

트레이시의 모자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비기하학

적인 형태로 모두 입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먼저, 기하학적인 형태는 입체파인 피카소나 그리고 세잔느의 영향을 받아 그의 작품에 응용하였다. 입체파 화가들에게 있어 자연은 분석되고 재구성되는 조형적 요소로서 간주되었다<sup>34)</sup>. 특히 피카소의 예술적인 면 분할과 대담한 구도, 밝은 색채의 도입은 그의 입체성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트레이시로 하여금 모자의 기본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조형물로서의 입체감을 강조함으로써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보이도록 디자인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세잔느의 "사물을 원추, 원통, 구에 따라 취급한다"는 설명처럼, 트레이시는 순수형태인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단순화된 기하학적 조형 형태를 이용하여 공간으로 입체화시킴으로써 모자를 원뿔의 뿔체와 각기둥, 원기둥의 기둥체와 다면체 그리고 구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림 8>에서처럼, 모자의 기본형 크라운 위에 기둥체를 이용한 기하학적 형태의 장식을 부가한 것으로, 대담한 구도를 표현한 작품으로서 모델이 착용한 검은색의 테일러드 수트의 직선적인 형태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림 18>에서처럼, 깃털 조각을 단순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조형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노랑색과 같은 밝은 색채의 도입은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비기하학적인 형태로 입체성을 표현한 방법으로, 자연물상에 추상을 거쳐 인간의 창작적 미의식에 의하여 탐구된 개성이 강한 조형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모자형태를 표현함에 있어 그 대상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트레이시의 주관에 의한 새로운 창출로 표현되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그림 3>에서는 자연물의 형태를 비기하학적인 입체적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나비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예이다. <그림 19>는 토크의 변형으로 곡선을 바탕으로 한 소용돌이의 모양으로, 플리츠 가공을 한 나일론 소재로 제작된 양의 뿔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다.

트레이시의 모자에서 사용된 입체성은 모자의 기본적인 입체적 형태에서 더 나아가 3차원적 구성을 창조한 조형적인 형태로 간주되며, 원이나 삼

각형을 이용한 기하학적 조형형태와 자연물상에 추상을 거쳐 대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비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율동적 특성

트레이시는 모자 디자인에 움직임의 중시하여 모델이 무대에서 캣워크(catwalk)할 때 흔들리는 율동감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한다. 알프레드 켈니(Alfred Kemeny)가 「역동적-구성적 형태 체계에 관한 선언문(Menifesto on the System of Dynamic Constructive Form)」에서 예술 영역에서 움직임이라는 것은 공간이나 구조 그리고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하다<sup>35)</sup>고 설명했듯이, 트레이시는 그의 작품에서 깃털과 종이, 원반, 술장식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움직임의 원리를 실현시켰다. 특히 모빌의 원리가 그의 작품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림 10>에서 처럼 검은색의 베레모 위에 철사 줄기와 깃털로 레드계열의 나뭇잎을 표현한 작품은 움직임에 의한 율동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림 11>은 모자 디자인에 분수의 형태를 응용한 작품으로 장식된 흰색 거위털의 흔들거림이 율동감을 주어 우아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깃털 모자의 흰색과 의상에서 흑인모델의 검은 피부는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 모자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12>는 종이를 구불거리게 하여 머리에 부착한 다음, 모델이 캣워크할 때 무대 아래에서 인공바람을 쏘여 종이가 바람에 휘날리게 하였는데, 이는 마치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이외에도 <그림 23>에서처럼, 검은망에 흰색원반을 부착시킴으로써 모델이 캣워크 할 때 어두운 배경 속에서 흰색의 원반만이 흔들리면서 율동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림 24>에서와 같이 모자에 술장식을 이용하여 흔들리는 리듬감을 표현한 경우도 있는데, 이 두 작품은 윗부분이 평평한 사각 모양으로 80년대의 유명한 모자디자이너였던 데이비드 실링(David shilling)의 상자형 모자 형태와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트레이시의 모자 디자인은 율동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역동적 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미는 그의 내적인 미의식이 항상 변화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 4. 미래지향적 특성

패션에 있어서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하이테크 소재의 사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트레이시의 모자에서도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우주의 형상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거나 소재에 있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금속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메탈릭 소재, 형광섬유, 홀로그로피 소재, 코팅소재 등 하이테크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로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한 예로, <그림 7>은 행성의 띠의 각도를 기울여 비대칭적 형태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소재를 통해 미래지향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주선의 유리창과 빠른 비행속도의 개념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투명함은 우주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패션에서도 오간자나 쉬폰과 같은 비치는 소재나 비닐과 같은 투명한 소재의 사용으로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에 트레이시의 작품에서도 <그림 13>에서처럼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얼굴이 투명하게 보이거나, <그림 16>에서처럼 씨쓰루(See-through)소재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그림 16>은 오간자에 첨단매체의 영향이 도입되어 TV나 컴퓨터, 비디오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여러 가지 빛을 발하는 원색의 다채로운 색감들을 홀로그래픽 효과로 가공처리 하여 홀로그래픽 소재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15>의 터번형의 모자에 금속코팅은 메탈릭한 소재에서 오는 미래적인 감각을 전해주고 있다.

그밖에 <그림 13, 14>에서처럼 각각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이용한 모형레이저 형상은 미래지

향적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적용되는 예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그의 모자는 미래지향성이 반영되어 혁신적인 스타일이 출현되었으며, 모형레이저나 행성을 형상화한 기하학적 이미지와 금속이나 여러 가공을 적용시킨 하이테크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지향성을 표현하였다.





이는 그가 기존의 미의식에서 정지하지 않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21세기의 새로운 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V. 결 론

모자는 의복의 외관적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액세서리중 하나로서, 평범한 옷차림을 멋스럽게 표현하고 복장을 완성시킨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의복의 개성화에 따라 액세서리를 이용한 다양한 연출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모자의 조형적인 미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체되어 가는 모자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모자를 중요한 패션 액세서리로

<표 1> 필립 트레이시의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과의 관련성

필립 트레이시의 디자인	미적 특성	조형적 특성
	초현실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브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의 상징화</li> <li>위치와 용도변경</li> </ul> </li> </ul>
	입체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체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하학적 형태</li> <li>비기하학적 형태</li> </ul> </li> <li>밝은 색채의 도입</li> </ul>
	울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깃털, 종이, 원반, 술을 이용한 장식</li> </ul>
	미래지향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주형상의 기하학적 형태</li> <li>하이테크 소재, 실크소재</li> <li>침단매체의 원색적 색감</li> </ul>

부상시킨 디자이너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의 모자 작품을 분석하여 조형성과 미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모자디자인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했

다. 이를 위해서 트레이시 모자의 조형적 특성을 형태, 소재, 색채, 장식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형태는 크라운과 브림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모자 형태에서 벗어나 구체적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난, 나비, 해조물, 꽃, 뱀, 가재, 새, 조개, 양의 뿔 등과 같은 자연물이나 배, 레이저, 의자, 분수 등 사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상은 원이나 나선형, 스칼립션 등을 정교하게 이용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소재는 기존의 소재에 독특한 소재를 첨가시킨 것으로 펠트, 플라스틱, 모직, 가죽, 나일론, 모피, 밀짚, 거즈, 깃털, 베일, 그물 망사, 새틴, 투명한 명주 그물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이나 금속과 같은 메탈릭한 소재, 코팅소재, 홀로그로피 소재 등 다양한 소재들이 합성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냄과 동시에 모자에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색채는 “99년 컬렉션”까지는 검은색과 흰색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 컬렉션”부터 녹색, 핑크, 연두색, 보라색과 같은 선명하고 화려한 자연 색상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장식에서는 “96년 컬렉션” 이후부터 깃털이나 망사 등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에 레이스, 조화, 술 장식이나 리본, 다이아몬드, 진주, 조개를 이용한 장식이 돋보였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종합해본 결과 트레이시의 작품이 초현실적 특성, 입체적 특성, 율동적 특성, 미래지향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초현실성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 넘어 무의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눈이라는 오브제를 사용하여 인간 신체에 대한 유사물을 모자에 실현시키거나, 위치와 용도변경의 방법으로 사물이나 자연물을 전혀 다른 용도로 전환시킴으로써 표현해내고 있다. 이는 현실을 벗어나 가상의 세계, 혹은 상상의 세계를 지향하려는 작가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입체성은 입체파인 피카소나 그리고 세잔느의 영향을 받아 예술적인 면분할과 대담한 구도,

밝은 색채의 도입으로 기하학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방법과 자연물상에 추상을 거쳐 자신이 미의식에 의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구체화시키는 비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는 모자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탈피하여 조형물로서의 입체적인 형태를 갖추으로써 2차원의 구성에서 벗어나 3차원적인 형태를 창조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셋째, 율동성은 움직임을 중시하여 디자인함으로써 모델이 캣워크 할 때 흔들리는 리듬감을 모자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한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의 디자인에서는 모빌의 원리를 응용한 움직이는 깃털과 종이, 원반장식, 술장식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미는 작가의 내적 미의식이 항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넷째, 미래지향성은 그의 작품에 금속이나 가공처리된 하이테크 소재를 이용하여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모형 레이저나 우주 행성의 형상 그리고 우주전사의 상징적인 형태를 모자에 표현하였다. 이는 비대칭적 구조와 원을 이용한 기하학적 형태로 응용되어 기존의 미의식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새로운 미를 제시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결과적으로, 필립 트레이시의 모자 디자인은 형태에 있어서 조형적인 미를 중시한 입체적인 작품으로, 기존의 소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선명하고 대담한 색채, 절제된 장식, 다양한 선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은 초현실적이고 입체적이며 율동미가 느껴지는 미래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실세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이성-감성의 적절한 혼합으로 기존의 인간예술에 내재된 규범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생성, 창조의 예술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음을 트레이시는 보여주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모자형태가 장식의 변화에만 국한되었던 모자 디자인의 한계를 넓히고 새로운 모자 디자인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며, 보다 창조적인 예술을 만들려는 예술가의 의지를 읽는데 도움을 주고, 과거

와 현재, 실제와 비실체가 혼재한 오늘날에 새로운 예술창작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Colin McDowell(1989).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Thames & Hudson Inc., pp. 7-16.
- 2) 김영인 외 7인(2001). 현대패션과 악세서리 디자인. 교문사, p. 164.
- 3) Madeleine, Ginsburg(1990). *The hat: Trends and traditions*. N.Y.: Barron's, p. 8.
- 4) ELLE Korea(2002). p. 103.
- 5) CNN, August, 23, 1999.
- 6) Vogue Korea(2001. 9). p. 154.
- 7) Fondazione Nicola Trussardi(2001). *Philip treacy*. Edizioni Charta, p. 63.
- 8) 트레이시는 지방시(Givancy),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 발렌티노(Valentino), 헬무트 랑(Helmut Lang), 티에르 뮈글러(Tierry Mugler), 베르사체(Versace), 안나 모리나리(Anna Molinari) 등의 오피트 꾸뛰르 디자이너를 위해 모자를 디자인을 해주었다.
- 9) Susie Hopkins(1999). *The century of hats: Head-turning style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Aurum, pp. 156-157.
- 10) Fondazione Nicola Trussardi(2001). *op. cit.*, p. 63.
- 11) Melissa Drier(2002). *Willkommen bei Leonce-People*. p. 35.
- 12) <http://www.designboom.com/portrait/treacy>
- 13) 트레이시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안토니 프라이스(Anthony Price), 샤넬(Channel),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 켄조(Kenzo), 장 폴 고티에(Jean-Paul Gaultier), 루이비통(Louis Vuitton), 니나리찌(Nina Ricci), 발렌티노(Valentino)에게 패션쇼를 위한 옷을 제공받았다.
- 14) Fondazione Nicola Trussardi(2001). *op. cit.*, p. 15.
- 15) Peter Davis(2002). *Papermag*. p. 45.
- 16) <http://www.designboom.com/portrait/treacy>
- 17) Fondazione Nicola Trussardi(2001). *op. cit.*, p. 15.
- 18) Andrew Tucker(1998). *The london fashion boo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pp. 48-51.
- 19) <http://www.artculture.com/treacy>
- 20) <http://www.philipptreacy.co.uk>
- 21) <http://www.hellomagazine.com>
- 22) Mary D. Tranquillo(1984). *Styles of fashion: A pictorial handbook*. N.Y.: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 65.
- 23) Andrew Tucker(1998), *op. cit.*, pp. 48-51.
- 24) <http://www.fashionwindows.com/treacy>
- 25) Sarah E. Braddock and Marie O'Mahony(1998). *Techno textiles*(2th ed.). Thames & Hudson, pp. 117-118.
- 26) 김정신(1996). 현대 모자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복식, 27(96년 2월호), pp. 197-201.
- 27) The Fashion Book(2001). *Phaidon*(2th ed.), p. 459.
- 28) ELLE Korea(2002). p. 147.
- 29) 광미영(1995).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pp. 7-16.
- 30) 데페이즈망(Depaysment): 데페이즈망은 물체나 영상을 그것이 놓여 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 내어 전혀 그 사물의 속성과는 다른 엉뚱한 곳에 놓음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보는 자의 마음속 깊이 유체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욱 외 2인(1995). 패션과 의생활. 형설출판사, p. 114.
- 31) 이용익(1991). 초현실주의가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 34.
- 32) 오브제(Object): 본래 물건, 물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이다. 초현실주의에서 오브제란 사람과 물체가 서로 교통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일상 생활에 쓰이는 모든 물체는 그 나름의 용도나 기능 또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물체가 오브제로 쓰이면 그 본래의 용도나 기능은 의미를 잃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잠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종욱 외 2인(1995). *op. cit.*, p. 115.
- 33) <http://www.artculture.com/treacy>
- 34) [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history/DB/hat\\_history](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history/DB/hat_history)
- 35) [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fashion/history/kinetic\\_art](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fashion/history/kinetic_art)